

# 현대 대만 재건 이후의 일본 통치 시대의 신사를 둘러싼 정치 과정

- 타이둥 현 시카노쿄 다쓰타무라의 시카노무라 신사를 사례로 -

노구치 에이스케 (고베대학)

##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타이둥현 시카노쿄 다쓰타무라에서 일본 통치 시대에 세워졌다가, 전후 곧 파괴된 시카노무라 신사가 재건되었다. 시카노무라 신사는 종교시설이 아닌 관광 명소를 목표로 재건된 것이다. 본 연구는, 시카노무라 신사가 재건된 후에 착안해 지역 자치 단체와 국회의원 등의 각 관계자가 재건 후 시카노무라 신사에 각각의 정책을 실시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서두에서, 본 연구의 전제로서 시카노무라 신사가 재건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후 재건 후의 시카노무라 신사를 둘러싼 정치 과정에 대해 논해 나가기로 한다. 본 연구의 무대가 되는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일본에서 대만은 친일 성향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에는 식민지 시절 일본어로 교육받은 일본어 세대로 불리는 고향의 대만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일본어로 일본 통치 시대의 기억을 그리워한다. 또, 독립 지향적인 민주 진보당과 대중국 유화 노선인 중국 국민당의 양대 정당이 정권을 경쟁하는 대만에서, 현재의 집권 여당은 민주 진보당이다. 전후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해 온 중국 국민당은 종종 일본 통치 시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곤 한다. 반면 민주 진보당은 일본이 통치하기 이전에 네덜란드와 청나라가 통치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일본 통치 시대도 대만이 걸어온 역사의 일부로 생각한다. 또 현재 대만의 수장인 민주 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일본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등 자주 SNS 상에서 일본어로 메시지를 보내, 민주 진보당을 친일 성향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친일 성향의 민주 진보당 정권 때 일본 통치 시대를 그리워하는 일본어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결집해 일본 통치 시대 신사가 재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에 관해서는 그러한 가설이 적용 가능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우선 현재의 시카노쿄 다쓰타 마을은 전쟁 전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니가타 현 등에서 이주한 일본인 이민자나 행정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극히 소수의 엘리트대만인 만이 거주를 허가받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통치 시대의 시카노무라 신사를 아는 ‘일본어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카노무라 신사가 재건된 2015년 10월은 중국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권 때이며, 친일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민주 진보당 정권 때 재건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 진보당 천수이볜(陳水扁) 정권 시절인 2000년대 초반에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이 검토될 때에는 대만의 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정부의 최고 기관인 교통부 관광국 국장의 판단에 따라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은 한차례 유보되었다. 또한 타이둥 현이 위치한 대만 동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 국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며, 또한 일본 대만 교류 협회가 실시한 2018년도 일본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을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 낮다. 이상과 같이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일본 통치 시대의 신사가 재건될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은 교통부 관광국 지방기관(화동중국 국가풍경

구 관리처)의 수장이었던 천승선의 주도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천승선은 시카노쿄를 포함한 지역에 일본인을 위한 관광 루트 정비를 위해 시카노무라 신사를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장인 천승선(陳崇賢) 시카노쿄 장과 지역 주민에게 뿌리를 내리는 등 스스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에 의해 톱다운 방식으로 재건된 시카노무라 신사에 대해, 재건 완료 후 지역 자치 단체 및 민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각 관계자가 시카노무라 신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도 내용을 포함해 청취 조사와 SNS를 이용해 그 과정을 밝히면서 정책의 수용자인 지역 주민의 시카노무라 신사에 대한 자세를 각 정책이 실시되는 정치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 2. 지역 자치 단체(시카노쿄 공소)의 정책

중앙 정부 측의 주도로 재건된 시카노무라 신사이지만 재건 후에는 지역 자치 단체의 관공서인 시카노무라 공소(公所)에 의해 관리 및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시카노무라 공소는 재건된 시카노무라 신사를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카노무라 신사를 활용한 현지의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다. 타이퉁 현 시카노 DOC(Digital Opportunity Center)는, 시카노쿄 주민에게 디지털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학습 센터로, 시카노쿄 공소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카노 DOC는 학생이나 외국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PC 강좌를 개최하거나, 시카노쿄의 각 마을을 방문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블릿 단말기의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카노 DOC는 이들의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다쓰타무라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블릿 강좌를 개최했다. 대상자는 다쓰타무라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대상으로 했다. 수업에서는, 참가자가 태블릿 단말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때 시카노 DOC의 직원이 참가자에게 화장 체험 및 일본옷이나 한복 입기 체험을 제공했고, 참가자들은 시카노무라 신사 앞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이 착용한 일본옷과 한복의 준비는, 시카노쿄 공소 직원으로, 시카노 DOC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홍비등(洪飛騰)이 직접 멀리 떨어진 대만 북부 타이베이와 남부 가오슝에 가서 구입했고, 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고 한다. 일본식 신사 앞 촬영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준비한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참가자의 한복을 입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고, 사이즈 관계상 일본옷을 입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폭이 넉넉한 한복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처럼 홍비등은 수업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그가 받는 돈은 강사료뿐이어서 홍비등의 부담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참가자의 입장에서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일본옷과 한복을 입고 일본식 신사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사에서 참배 의례를 흉내 내는 등 매우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수업 자체는 현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블릿 강좌였지만, 시카노쿄 공소의 직원인 홍비등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일본옷과 한복을 준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비등은, 시카노무라 신사의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시카노무라 신사의 지명도는 대만 전체뿐 아니라, 시카노쿄에서도 지명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다. 실제 수업 참가자 중 한 명이 시카노무라 신사 앞에서 찍은 사진을 손자에게 보여줬더니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홍비등 자신도 강좌 당일 사진을 다른 지역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조금이라도 시카노무라 신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카노무라 신사의 존재가 입



소문 등으로 퍼져 관광명소로 더욱 유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시카노쿄 공소의 두 번째 정책은 ‘벚나무 심기’였다.

2018년 3월 시카노쿄 공소는 시카노무라 신사 경내에 벚꽃을 심었는데 벚꽃이라고 해도 예산 사정으로 일본 벚나무를 심기가 어려워 ‘태국의 벚꽃’으로도 불리는 칸라파 푸룩을 심기로 했다.



홍비등은 시카노무라 신사를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는 사진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맞춰 현지 주민들이 시카노무라 신사에서 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관광객을 위해 일본옷 등을 대여하는 가게나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관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시카노무라 신사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카노쿄 공소는 식수 사업을 하면서 시카노무라 신사와 인접한 도교 사원(쿤쓰탕)을 관리하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혀 설득에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카노쿄 공소는 다쓰타무라의 경제를 살리고 싶다는 뜻을 지역 주민에게 정중히 전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시카노쿄 공소에 의해 식수된 75그루의 칸라파 푸룩은 성장 단계를 거쳐 2020년 5월경에 처음 개화했다고 한다. 다쓰타무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주민 조직(다쓰타 사구발전협회)은 페이스북에 관광객의 방문을 투고하고 있어, 일정 정도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을 엿볼 수 있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비등이 기대했던 옷 대여점과 사진관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 3. 민주 진보당 국회의원 (류노호 입법 위원) 정책

민주 진보당 정권의 시대인 시카노무라 신사 재건과 관련된 경위를 되돌아보면, 2000년대 전반의 민주 진보당 천수이벤 정권 시절에는 교통부 관광국장의 판단으로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을 미루었지만, 민주 진보당 차이잉원 정권 시절에는 타이둥현 선거구 선출의 민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입법위원)인 류노호가 재건 후의 시카노무라 신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류노호는 2019년 11월 교통부장(장관에 상당)의 시카노쿄 관광 정책 시찰을 주재할 때 시카노무라 신사 시찰도 했다. 류노호는 교통부장에게 ‘시카노 다쓰다 신사 거점’ 개선 계획의 실시 필요성을 촉구하고, 그 중에서도 시카노무라 신사 부근의 노후화된 공중 화장실 보수 공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교통부장은 그 자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및 시카노무라 신사 주변의 경관 정비에 약 1300만 신 대만 달러(당시 약 4800만 엔화)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러한 공사는 시카노무라 신사를 재건한 교통부 관광국 지방기관(화동중곡 국가풍경구 관리처)이 수행되게 되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류노호의 비서, 시카노쿄 장, 시카노쿄 공소 직원 및 지역 주민 등과 논의를 하면서 검토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20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는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로 공중화장실은 시카노무라 신사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주변 다쓰타무라 주민 조직과 노인 회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공사에 대한 현지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공중화장실 앞 광장에서 대화나 운동을 즐기고 있어, 평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는 장점이 큰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4. 맺으며

이상, 본 연구에서는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대에 중앙정부 측의 주도로 재건된 일본 통치 시대의 신사에 대한 지역 자치 단체 및 민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해 밝히는 동시에 이들 정책과 관련한 지역 주민도 참석한 미시적인 정치 과정에 대해 논해 왔다. 현지 자치 단체는, 예산상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태블릿 강좌의 개최나 벚나무 식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재건 후의 일본 통치 시대의 신사를 어떻게든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다. 한편 민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공중화장실 개수 공사를, 지역 주민의 별다른 반대 없이 재건 후 일본 통치 시대의 신사와 관련지어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써 실현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시카노무라 신사에 대해, 보도나 칼럼에서는 시카노무라 신사의 재건을 바라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 자주 그려졌다. 그러나, 청취 조사를 주의 깊게 분석해 보니, 시정을 맡은 행정 기관 및 의원의 정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실익을 얻으려는 현지 주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제 통치 시대의 신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책임자:양효진)